

애완동물에 대한 지나친 신체접촉, 부적절한 관리 인체에 심각한 위해줄 수 있어

애완견, 이구아나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매년 증가하면서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으나, 잘못된 사육지식과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애완동물이 배출하는 배설물에 생존하고 있는 기생충이나 병원성세균에 의한 실명사고, 식중독 사고가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애완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기생충 감염 및 각종 전염병 감염 예방

배설물내 충란이 체내로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개월 간격으로 구충제를 투약하고, 광견병을 비롯한 전염병 예방주사의 정기적인 접종과 주기적인 검진을 실시한다.

- 피부질환 감염 예방

피부보호제가 함유된 세제로 1주일 또는 10일에 한번씩 목욕시킨다. 특히 환절기에는 동물의 털이 날리지 않도록 자주 빗겨주고, 피부질환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무는 사고 예방

애완동물이 먹이를 먹을 때나 잠자고 있을 때, 새끼를 돌보고 있을 때는 건드리지 말고, 자주 짖거나 잘 무는 애완동물의 경우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토록 한다.

- 배설물에 대한 위생 처리

-일정한 곳에서 배변을 보도록 교육시키고, 배설물 처리시에는 배설물이 손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반드시 일회용장갑을 끼도록 하고, 처리시 전문소독제 및 락스(100~200배 희석) 등으로 소독한다.

-배설물을 처리한 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외출시에는 배변봉투를 지참하여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도록 한다. 